

붓다 교설의 원점 '탐·진·치'



**박래원 교수의
貪·瞋·癡 철학적 읽기(1)**
울산대 철학과 교수

불교는 근본적인 세 가지 번뇌로 탐욕(貪欲)·진에(瞋怒)·우치(愚癡)를 꼽는다. 이를 삼독심이라고 한다. 열반이라는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삼독심을 끊어내야 한다. 박태원 울산대 철학과 교수는 '탐욕·분노·무지의 철학적 읽기'의 논문에서 탐·진·치의 연거진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삶에 새겨진 탐·진·치의 결(理)과 무늬(形)를 철학적 시선에서 음미한 박 교수의 논문을 10회에 걸쳐 발췌·정리해 보았다. 〈편집자 주〉

1. 탐욕·분노·무지

붓다의 언어는 다양한 매들이 중층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하나의 새끼줄이다. 다양하게 꼬여진 언어의 새끼줄을 모두 수렴하여 묶는 매듭, 새끼줄 꼬기를 출발시키고 마무리하는 매듭들이 다채롭게 배열되어 있다. 탐욕·분노·무지는 붓다의 언어 새끼줄에서 목격되는 수렴과 발산의 대표적 매듭이다. 불학의 구성은 탐욕·분노·무지에서 출발하고, 다시 그곳으로 되돌아오게 된다. 사유의 결(理)과 무늬를 다루는 철학적 읽기의 필요성을 염두에 두고, 탐욕·분노·무지의 문제를 음미해 본다.

탐욕·분노·무지(이하 탐·진·치로도 표기)의 문제는 붓다 교설이 발산하고 수렴되는 원점이라 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이다. 붓다는 수행의 과제와 목표를 일관되게 탐·진·치를 중심으로 설정하고 있다. 니까야에서 확인되는 붓다의 탐·진·치 관련문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전한다.

탐·진·치의 그림이 무위(無爲: 行에서 풀려남)인 열반이며 청정법행의 완성이고 불사(不死)의 지평이자 최상의 평화이다. 세존은 자신을 일컬어 '탐·진·치를 멸치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잠을 잘 자는 사람'이라고 한다. 불·법·승 삼보(三寶)는 탐·진·치 지멸의 상징이며, 탐·진·치와 지혜의 눈(慧眼)이 유익한 법의 쇠퇴 여부를 결정한다.

탐·진·치는 모든 업의 근원으로서, 업은 탐·진·치에서 생기는 것과 탐·진·치 없음에서 생기는 것의 두 가지로 나뉘는데, 탐·진·치 때문에 일어난 업은 '해롭고' '비난받아 마땅하고' '괴로운 과보를 가져오고' '다른 업을 일어나게 하고' '업을 소멸하게 하지 않으며', 탐·진·치 없음에서 일어난 업은 '유익하고' '비난받을 일 없고' '즐거움 과보를 가져오고' '다른 업을 일어나지 않게 하며' '업을 소멸하게 한다.' 또 탐·진·치는 세 가지 해로움의 뿌리인데 비해 탐·진·치 없음은 세 가지 이로움의 뿌리이고, 탐·진·치가 좋음·유익함(kusala, 善)과 좋지 않음·해로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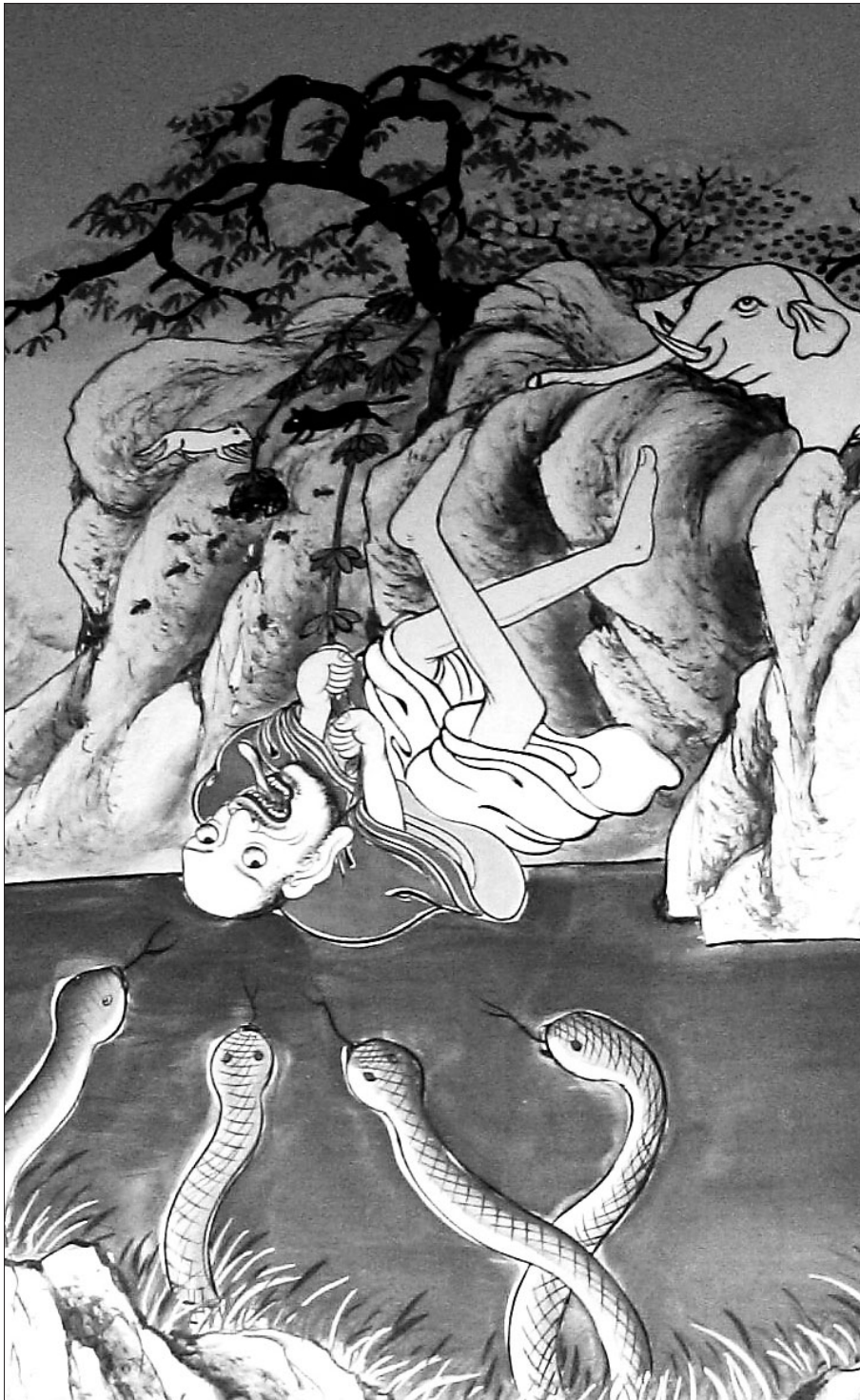
(akusala, 不善)을 나누는 기준이다.

감각능력(六根)과 대상(六境)의 만남에서 발생하는 세 가지 느낌(즐거움 느낌·괴로운 느낌·즐거움과 괴로움에 쓸리지 않은 느낌)은 각각 탐욕·분노·무지의 잠재적 경향의 발전과 연관되며, 대상(육경·경계)을 탐·진·치로서 경험하는가 아닌가 해탈수행의 핵심이다.

식(識)이 감각능력(육근)과 감각대상(육경)의 관계를 '빠져 들과 종속'으로 처리하게 되는 조건·원천·이유가 탐·진·치이다. 탐·진·치에 묶이면 자신과 타인 그리고 모두를 해치는 생각을 하게 되고, 탐·진·치에서 풀려나면 자신과 타인 그리고 모두를 해치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두려움과 공포, 슬픔은 탐·진·치에서 오며, 사유의 그릇인 개념도 탐·진·치에 물들어 있다. 오온을 탐욕의 대상으로 경험하는 사람은 여래4구(四句, 사후 여래에 대한 존재·비존재·비존재·비비존재의 판단)의 개념환각에 빠지고, 오온을 탐욕의 대상으로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여래4구의 멧에 빠져들지 않는다.

판단·평가·이해의 인식을 가능케 하는 초기조건인 표상(nimitta, 相)은 탐·진·치의 산물이며, 동시에 아름다운 표상(相)은 탐욕(감각적 욕망)의 조건이고 적의 표상은 분노의 조건이 된다. 탐욕·분노가 발생하고 증폭하는 원인·조건은 '아름다운 표상·적의 표상' 및 그것을 '지혜롭지 못하게 마음에 둠'(不如理作意)이고, 무지 발생과 증폭의 원인·조건은 '지혜롭지 못하게 마음에 둠'(不如理作意)이다. 그리고 탐욕·분노가 일어나지 않거나 일어난 것이 사라지게 되는 원인·조건은 '부정(不淨)의 표상·자애심' 및 그것을 '지혜롭게 마음에 둠'(如理作意)이고, 무지가 일어나지 않거나 일어난 것이 사라지게 되는 원인·조건은 '지혜롭게 마음에 둠'(如理作意)이다.

탐욕은 허물은 적지만 천천히 사라지고, 분노는 허물은 크지만 빨리 사라지며, 무지는 허물은 크고 천천히 사라진다. 탐·진·



〈불설비유경〉에 있는 '안수정등(岸樹井藤)의 비유. 오도 가도 못하고 언제 최녕굴이 끊어져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눈앞의 번뇌와 욕망을 탐닉하는 인간의 삶을 묘사하고 있다. 욕망을 바로 보고 넘어서는 것이 불교의 중요한 가르침이다.

치는 계·정·혜 삼학 수행의 구조와 맞물려 있다. 중생은 계행·마음·견해의 결합이 있는데, 오계를 범하는 것이 계행의 결합, 탐욕과 분노는 마음의 결합, 연기법을 외면하는 것은 견해의 결합이다.

따라서 오계를 준수하면 계행의 구조이고, 탐욕과 분노가 없으면 마음의 구조이며, 연기 정견을 지니면 견해의 구조이다. 견해의 결합이 곧 무지이라는 점에서, 탐욕·분노는 정학의 대상이고 무지는 혜학의 대상인 셈이다.

선천적 탐·진·치 경향의 강약과 5근(信·精進·念·定·慧) 강약의 상호관계에 따라, 수행 진보의 난이와 최상의 지혜 성취의 더디고 빠름이 결정되기도 한다. 위빠사나 관법으로 수행할 경우, 탐욕은 부정

관, 분노는 자애관, 아만·무지는 무상·무아관으로 대처한다. 사마타 선정수행으로 보면, 초선(初禪)의 경지에서 탐욕과 분노의 잠재적 경향이 풀리고, 제4선(第四禪)의 경지에서 무명의 잠재적 경향이 풀린다.

박태원 교수는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철학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울산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원효, 선(禪), 니까야 대장경을 실존적 관심으로 지속적으로 탐구하여 그 성과를 글에 담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이 같은 학문적 성과로 제1회 대정학술상과 제2회 원효학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행복 스님의
一切唯心造

설렘으로 집착 않으면

사람은 누구나 늙는다. 늙으면서 병이 들고 병으로 인해 죽어간다. 늙지 않고 병들지 않으며 죽지 않을 수는 없지만 더디게 가는 방법이 있다.

첫째 늙지 않는 법, 정확히 말하면 더디게 늙는 법은 설렘이다. 설렘은 세포 조직의 활동까지 설레게 하여 온몸이 밝은 기운으로 충만하게 된다. 설렘은 오장육부에게까지 전달되어 그 맑은 바임무가 활발해진다. 설렘은 게으름을 멀리한다. 온몸의 동작을 부지런하게 만든다. 설렘은 잃었던 입맛도 되돌아오게 한다. 낮잠을 즐기지 않아도 온몸이 가벼워진다. 설렘은 만남이 없어도, 이름이 없어도, 수확이 없어도 생각만으로 행복하다.

둘째는 병들지 않는 법이 아니라, 드물게 병을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다. 사람이 알고 있는 모든 병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마음을 진정으로 크게 비우면 병 또한 큰 걸음으로 저만치 물러설 수 밖에 없을 터이다. 사람은 누구나 생각, 생각을 일으켜 짐승이 되기도 하고 성자

나는 언제나 세계의 주인

하루의 절반은 밤이다. 사람이 70년을 살 경우 누워 지내는 절반의 밤을 빼면 35년이다.

그렇다면 누워서 지내는 기간도 35년이라는 계산이다. 사람은 서 있을 때만 사람이 아니다. 누워 있을 때 사람은 사람이다.

서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를 생각하면 신체 중 제일 높은 곳이 머리가 될 수 있고, 가운데 손가락이 될 수 있겠다. 그러나 누워서 보면 여자일 경우 유방이 될 수 있겠고, 배꼽이 중년 남자의 경우 배꼽이 신체 중에 제일 높은 곳이 될 터이다.

불교의 대표적인 사상은 중도사상(中道思想)이다. 중도란 쉽게 말해서 좌우의 양면이 아닌 중앙을 의미한다. 흔히 들 선(善)에도 치우치지 않고 악(惡)에도 치우치지 않는, 강(強)과 유(柔)를 조화시킨 중간의 의미로 중도(中道)를 설명하고 있으나 불충분한 설명임을 알아야 하며, 그러한 중도에 대한 인식은 유교의 중용사상(中庸思想)에 머물고 있는

버리고 비우며 나누면 덜 아프다 너는 곧 세상의 중심에 선 주인공

(聖者)가 되기도 한다. 요부(妖婦)와 열녀(烈女)는 동전의 앞뒤와 같은 것이다. 생각이 한 곳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이 원인이 되어 병이 되고 탈이 나는 법이다.

당뇨를 앓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보자. 과당을 많이 섭취해서도 아니고, 과잉영양 쪽도 아니다. 그리고 이성(異性)쪽을 밝혀서도 아닐 터이다. 제일 큰 원인은 사업 실패나 절망감, 좌절감 등으로 엄청난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을 때 생체리듬은 흔들리고 깨어지게 되어 있다. 집착하지 않는 것 쉽게 잊어버리는 것, 용서하며 사랑할 수만 있다면 모든 병은 더디게 온다. 병이 최종스러워 자신감 앞에서는 좋아들게 되어 있다.

셋째는 죽지 않을 수는 없지만 편히 죽음을 맞이하는 방법에 대해서다.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죽음을 많이 지켜본 의사나 간호사, 또는 호스피스(Hospice)가 입을 열어야 할 것 같다. 모든 경험은 할 수 있으나, 죽음 경험은 없기 때문이다.

살아생전에 버리고 비우며 나눔을 생활화 하면 그는 덜 후회하며 덜 아파하며 죽음을 맞이하지 않을까 싶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일이지만,

수순이다. 유교의 중용사상이 양면불락(兩邊不落)에 머물고 있다면 불교의 중도사상은 양면무애(兩邊無礙)이자 무변중심(無邊中心) 사상임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교의 중도(中道)에는 좌우의 양면이 없다. 서 있는 곳이 언제나 중심(中心)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동, 서, 남, 북이란 본래 없는 것이다. 좌(左)와 우(右)도 없는 것이다. 처음과 끝도 없는 것이다.

내가 머물고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이 세상의 중심이자 세계의 주인공 자리인 것이다. 불교에는 수처작주(數處作主)라는 말이 있다. 가법계 그 뜻을 풀이하자면 어느 곳에 머물더라도 스스로 주인임을 잊지 말라는 뜻일 게다. 그러나 그 깊은 곳에는 '내가 곧 부처이니 다른 곳에서 부처를 찾지 말라, 너는 곧 세상의 중심에 선 주인공'이라는 뜻을 알아야 한다.

거듭 말하지만 불교는 신(神) 중심의 종교가 아니라, 사람 중심의 종교이다. 신의 구원을 약속해 주는 종교가 아니라, 네 스스로 부처임을 일깨워 주는 종교이다. 마음을 열고 보면 양변(兩邊)도 중심(中心)도 들어안 한나이다.

아주 특별한 영치유의 세계!!

제72기 최면 전생요법·빙의치유법 강좌

“한마디 말로 三生을 꿰뚫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한다”



한국최면과학원 임재형 원장 직강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한 최면요법!
잠재의식 직접조절 - 강력한 개선효과!

※ 누구나 과학적인 방법만 익히면 자기개선은 물론 타인을 돕는 최면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전생요법 : 도체체 전생에 무슨일이 있었는지? 무의식 속에 숨겨진 원인을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제반 문제를 해결하고 통찰력을 높혀 지혜로운 삶을 찾게한다.

빙의치유 : 몸은 왜 이렇게 이유도 없이 아픈것일까? 빙의된 영가를 직접 불러내어 어떤 영가가 들어왔는지 당사자나 가족들이 알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들어와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원하는 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내어 천도할 수 있다.

사주명리 : 전생, 사주팔자, 빙의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있다.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 백호대살은 저승사자 달고다니니 황사 악사요...

- KBS 굿모닝 대한민국
- SBS 미워도 다시 한번
- 그 여자 그 남자
- 재벌A 현영로 특종세상
- MBN 심령술원 엑시스트 외
- tvN 4층 계층 방송에다수 출연
- MBC 생방송 오늘아침
- JTBC 부모찾기
- TV조선 가족 두개의 문
- YTN 사이언스 과학하기

tvN 심령술원
엑시스트 출연 화제!

실전문주의 파워풀한 강의!!

현재 접수중 - 1회 무료수강 후 결정!!

-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7회 과정)
- ▶ 참가비 : 200만원 (과정별 교재 및 수련CD제공)
- ▶ 최면지도사협회 가입 후 전생상담사 이수증 수여



www.hypnos114.com

한국최면과학원

대전광역시 중구 석교동 13-1

042) 222-0737

개인상담 및 공·사 기업체 출장강의 가능

성격 개선/ 자신감 고취/ 습관 교정/ 발표 불안/ 부부 솔루션
대인관계 개선/ 스트레스 해소/ 마음의 상처/ 분노 조절
집중력, 기억력 증진/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범죄 수사
스포츠선수 기록 향상/ 전생 체험/ 빙의 치유 등